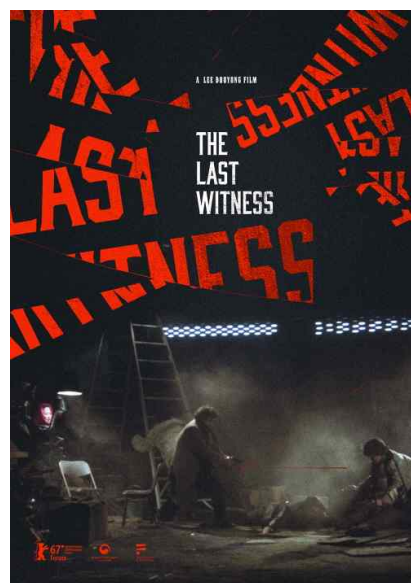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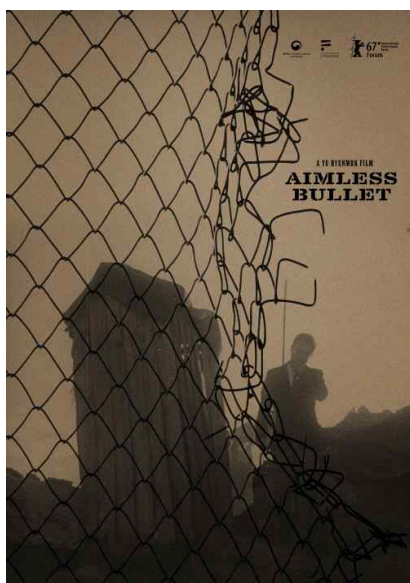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담당자	김세연
팩스	02-3153-2080	연락처	02-3153-2053
이메일	vandyck@koreafilm.or.kr	휴대폰	010-3005-8173

보 도 자 료

한국영상자료원 복원작 <오발탄>, <최후의 증인> 베를린국제영화제 상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영상자료원(원장 류재림, 이하 ‘영상자료원’)은 2월 9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영상자료원의 복원작 두 편을 선보인다. <오발탄>(유현목, 1961)과 <최후의 증인>(이두용, 1980)은 각 영화가 담고 있는 사회 인식(<오발탄>)과 장르적 우수성(<최후의 증인>)으로 인해 영화학자, 평론가가 뽑은 한국영화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영상자료원 파주보존센터를 통해 복원된 두 작품을 국제적 행사에서 선보임으로써 한국고전영화의 힘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3153-2053)

□ 세계 무대에서 선보이는 우수 한국고전영화 <오발탄>, <최후의 증인>

오는 9일 개최되는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우수 작품들을 선보이는 대표적 영화 축제이다. 영상자료원은 지난 2013년 국내 최고(最古) 영화 <청춘의 십자로>를 선보인 이래 두 번째로 한국영화사의 중요 작품으로 거론되는 <오발탄>과 <최후의 증인>을 디지털 복원하여 출품한다.

△ <오발탄>, <최후의 증인> 베를린영화제 출품 포스터

1961년에 제작된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과 이두용 감독의 1980년 작 <최후의 증인>은 영화학자, 평론가뿐 아니라 후배 영화인들이 격찬한 대표적인 한국고전영화다. 전후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폐한 일상을 가감 없이 드러낸 작품 <오발탄>은 한국영화 걸작을 꼽는 다수의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수작이며, 액션물의 대가 이두용 감독의 대표작 <최후의 증인>은 개봉 당시 50여 분이 검열, 삭제되어 완본이 공개된 최근부터 그 작품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영화이다.

□ 최신 복원 기술과 함께 재탄생한 걸작

영상문화유산의 보존, 복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상자료원 보존기술센터는 이 두 편을 각각 VFX 디지털 합성 기술, 4K 고해상도 복원 기술과 접목시켜 새로이 선보였다. <오발탄>의 경우 1963년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 출품되었던 유일본을 기반으로 화면 손실과 스크래치 등을 한 프레임씩 수작업으로 복원하였으며, 특히 전체 영자막 제거를 위해 기존의 복원 기술이 아닌 디지털 합성 기술을 활용, 680여 개에 달하는 자막을 삭제한 후 2016년 5월 공개되었다.

△ <오발탄> 복원 전후 비교 (좌측 복원 전)

또한 필름 스캔부터 복원, 색보정, 마스터링에 이르는 전 공정을 4K로 진행한 <최후의 증인>은 40여 년 시대차를 체감하기 힘들 만큼의 고화질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영상자료원에서 보유 중이던 원본 네거티브 필름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스크레치와 찢어진 프레임을 보수하였고 불규칙한 퇴색에 의한 밝기 불안정 현상 또한 해결했다. 이와 더불어 이두용 감독의 감수를 거쳐 선명한 해상도와 함께 부드러운 필름룩 및 회색톤의 스산한 분위기를 최대한 유지하여 영화의 정서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최후의 증인> 복원작은 지난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 <최후의 증인> 복원 전후 비교 (좌측 복원 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인간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엿볼 수 있는 두 작품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우수 한국고전영화를 세계 무대에서 선보임으로써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첨부 자료] <오발탄>, <최후의 증인> 영화제 상영 일정 및 작품 정보

2017 한국영상자료원 복원 베를린국제영화제 출품작 **<오발탄>, <최후의 증인>**

□ 상영 일정

작 품	일정 및 상영 장소	
<오발탄>	2월 11일(토)	2월 18일(토)
<최후의 증인>	2월 10일(금) 감독과의 대화(이두용 감독 참여)	2월 16일(목)

□ 작품 소개

<table>
<tr><td rowspan="8"><오발탄></td><td>감 독</td><td>제작년도</td><td>러닝타임</td><td>장르</td></tr>
<tr><td>유현목</td><td>1961</td><td>107분</td><td>드라마, 문예, 사회물</td></tr>
<tr><td colspan="2">출 연</td><td colspan="2">비 고</td></tr>
<tr><td colspan="2">김진규, 최무룡, 서애자, 노재신, 문정숙 등</td><td colspan="2">1963년 제7회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상영</td></tr>
<tr><td colspan="4">줄 거 리</td></tr>
<tr><td colspan="4">계리사 사무소 서기인 철호(김진규)는 전쟁 통에 미쳐 “가자! 가자!”를 외치는 어머니(노재신), 영양실조에 걸린 만삭의 아내(문정숙)와 어린 딸, 여동생 명숙(서애자), 실업자인 퇴역군인 동생 영호(최무룡), 학업을 포기하고 신문팔이에 나선 막내 동생 민호를 거느린 한 집안의 가장이다. 계리사의 월급으로는 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그는 항상 치통을 앓으면서도 치과에 갈 엄두를 못 내고,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은 영호를 은행 강도의 길로, 명숙을 양공주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td></tr>
<tr><td rowspan="7"><최후의 증인></td><td>감 독</td><td>제작년도</td><td>러닝타임</td><td>장르</td></tr>
<tr><td>이두용</td><td>1980</td><td>158분</td><td>드라마, 범죄, 전생</td></tr>
<tr><td colspan="4">출 연</td></tr>
<tr><td colspan="4">하명중, 정윤희, 최불암 등</td></tr>
<tr><td colspan="4">줄 거 리</td></tr>
<tr><td colspan="4">문창경찰서의 오병호 형사(하명중)는 양조장 주인 살인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오 형사는 죽은 양달수(이대근)의 과거와 연루된 인물들은 찾아다니다 황바우(최불암)의 존재를 알게 되고, 빨치산 출신의 강만호와 양달수의 첩으로 술집 여인이 된 손지혜(정윤희)를 만나며 진실에 접근해간다.</td></tr>
</table>